

『양은천미』에 나타난 서술방식의 통속적 양상과 그 의미

—〈김영낭용지가귀문〉과 〈봉황대회금강춘월〉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기성*

— <차 례> —

1. 서론
2. 전대 야담의 차용과 여성인물의 강조
: <김영낭용지가귀문〉과 『원앙도』
3. 변안 소설의 수록과 부분적 초점화
: <봉황대회금강춘월〉과 <소지현나삼재합〉
4. 통속적 서술방식의 사용과 시대성의 내밀화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양은천미』에 나타난 통속적 서술방식이 나타난 사례와 그 의미를 살폈다. 20세기 초 야담집은 대체로 전대의 고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양은천미』는 20세기 초에 산출된 야담집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전재’라는 서술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은천미』에 수록된 <김영낭용지가귀문〉과 <봉황대회금강춘월〉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전대의 야담집과 달라진 부분을 추적하는 한편, 당대의 다른 문학작품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양은천미』의 편찬자는 『쇄어』나 『선언편』, 『성수총화』에 나타나는 <조생-도우탄의 딸> 이야기를 큰 골자로 하면서도 『기문총화』 소재 <이만원> 이야기에 나타나는 모티프를 활용하여 <김영낭용지가귀문〉의 서사가 더욱 풍부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여인들의 재지를 강조하고, 자유연애를 갈망하던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당대 이해조가 『제국신문』에 연재한 『원앙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 경희대학교 강사

<봉황대회금강춘월>은 명대의 소설집 『경세통언』에 수록된 <소지현나삼재합>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이를 번안한 <월봉기>, <강릉추월전>류의 작품과도 닮아 있다. 그런데 <봉황대회금강춘월>에는 기존의 작품에 존재하던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제외하고, 남녀 결연담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가족의 이산과 같은 부분은 대폭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열강의 각축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 익숙했던 가족의 피난기를 형상화하였다.

이 두 작품이 공히 근대적 세계를 전경화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터다. 다만 『양은천미』의 편찬자는 당대의 문학적 동향과 시대적 변화에 촉각을 세우면서, 대중들에게 익숙한 통속적 문학양식을 통해 야담집을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양은천미』는 고담을 전제하던 여타의 야담집과는 다른 방식을 표방했음을 의미하며, 이에 20세기 초 필사본 야담집으로서의 독특한 위상도 인정된다.

□ 양은천미, 통속적 서술방식, 원양도, 소지현나삼재합, 전승과 변이

1. 서론

본고는 ‘지금-여기’를 지향하던 야담이 20세기 초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으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양은천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은천미』의 서술방식에 나타난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달라진 시대를 『양은천미』가 어떻게 체화하고 있는지 밝히도록 한다.

20세기 초 야담을 향한 일련의 시선에는, 야담이 더 이상 새 시대의 경험상과 질곡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의 의미가 어려 있다. 다수의 구활자본 야담집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¹⁾는 언급은 바로 이 시기 야담이 전대의 유희들을 선별하여 단순 전제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방증

한다. 이는 곧 ‘지금-여기’의 사건을 다루던 야담의 문제의식이, 고담의 소환을 통해서나 명맥을 이어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1910년경에 산출된 『양은천미(揚隱闡微)』²⁾는 야담사에서 다소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필사본 야담집의 전통은 19세기 후반 『차산필담』 이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청야담수』와 같은 야담집이 등장하기는 했지만³⁾, 이는 어디까지나 후대의 야담집인 『계서야담』, 『동야회집』, 『동패락송』, 『기문총화』 등을 저본으로 발췌하여 전제한 총화 유형의 야담집⁴⁾으로 구활자본 야담집의 편집방식과 변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양은천미』의 경우 전대 유향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되고 달라지는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필사본 야담집의 전통이 20세기 초에 들어서도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은천미』가 20세기 초에도 존재할 수 있었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하나는 전통적 연구방법에 따라 전대의 유향에 따른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야담은 대개 전대의 유향을 차용하여 변화를 꾀하는데, 그 틈입의 지점에는 반드시 편찬자의 의도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당대의 문학적 동

- 1) 이윤석·정명기, 『구활자본 야담의 변이양상 연구』, 보고서, 2001, 100쪽.
- 2) 권기성은 『양은천미』의 편찬연도를 1910~12년으로 좁히고 원천 소재를 살펴 개략적인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권기성, 『『양은천미(揚隱闡微)』 소재 유향(類話)의 원천탐색과 편찬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5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169~204쪽.
- 3) 정명기는 160화 ‘數千金으로 使免官逋’항에 나타나는 외국인(倭虜)이라는 표현을 통해 『청야담수』의 편찬연도가 19세기 말로는 소급될 수 없으며, 일제의 신문지법 혹은 출판법을 고려해봤을 때, 이 작품은 20세기 초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명기, 『『청야담수』의 원천과 변이양상 연구』,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2권, 보고서, 2001, 288~289쪽.
- 4) 김동욱, 『『청야담수』의 원천과 제 문제』, 『도남학보』 20권, 도남학회, 2004, 163~183쪽.

향과의 관련성을 수렴하는 것이다. 야담은 당대의 여러 문학 장르들과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이 같은 방식 또한 야담 서술체에 내재된 특징 뿐 아니라, 시대적 의미를 살피는 데 있어 유효할 것이다.

특히 『양은천미』는 ‘1910년’이라는 특수한 시대성 속에서 산출되었다. 이 시기는 일제의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때로, 이후 일제에 의해 많은 것들이 통제되면서 문학 역시 그 자장 하에 종속되어 갔다. 이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횡행하던 계몽담론은 그 자취를 거의 감추어 바야흐로 ‘통속성’의 시대를 얼마간 맞이하게 된다.⁵⁾ 즉 일제의 신문지법이나 출판법에서 문학은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양은천미』 또한 이러한 격랑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에 그 분석에 있어서 당대의 문학적 동향을 무관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은천미』 소재 <김영낭용지가귀문(金英娘用智家貴門)>과 <봉황대회금강춘월(鳳凰臺會金剛春月)>의 두 사례를 통해 두 작품의 서술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은 각각 『양은천미』의 편찬자가 구사하는 서술방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작품이기 때문에, 편찬자의 편찬의도를 파악하고 『양은천미』에 내포된 시대적 의미를 추적하기에 유효한 대상이 될 것이다.⁶⁾

5) 신소설의 통속화 현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곧 “근대문학사에서 일반화된 관점은 1900년대에는 개화계몽의 담론을 만들어 냄으로써 문학적 역할은 거둘 수 있었으나, 1910년대에 와서는 통속적인 소설로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소설은 일제의 강점을 전후로 1900년대에서의 애국계몽성을 잃어버리고 통속의 문학으로 귀착된다는 것이 일반화된 견해이다. 남석순, 『신소설의 대중화와 통속적 요인 연구』, 『한국문예창작』 2.2, 2003, 87쪽.

6) 여기에서는 ①『양은천미』(이신성·정명기 역, 보고서, 2000)의 원문과 번역문을 텍스트로 하되, 필요한 경우 ②『한국야담자료집성』 12권(정명기 편, 경인문화사, 1987)을 참고하였다. 이하 본문의 출처는 모두 이와 같다.

2. 전대 야담의 차용과 여성인물의 강조

: <김영낭용지가귀문>과 『원앙도』

개별 작품의 분석을 위해 우선 <김영낭용지가귀문>의 작품경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조선 성종 때 재상이 평안감사가 되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한다.
- ② 감사의 아들 도령은 강에서 빨래하는 처녀를 보고 반하여 처녀의 집으로 찾아간다.
- ③ 도령은 처녀의 아버지와 혼인을 논하나, 처녀는 첩이 될 수 없다며 거절한다.
- ④ 도령은 처녀의 뜻에 따라 부모 몰래 혼서를 쓰고 혼약을 약속한다.
- ⑤ 처녀가 감영에 방문하여 대부인과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사와 부녀의 의를 맺는다.
- ⑥ 향족의 여인이 혼인을 물리는 탄원서와 수탈 한 마리를 제출하자 감사가 고민에 빠진다.
- ⑦ 처녀가 신랑의 하체를 조사하여 낭신이 없음을 밝혀내고 사건을 해결한다.
- ⑧ 감사의 옛 친구 송생이 감영을 들렀다가 가는 길에 노비들에게 납치를 당한다.
- ⑨ 송생이 노비들의 겁박에 의해 평안감사에게 속량금을 보내 달라는 서신을 보낸다.
- ⑩ 처녀가 서신을 보고 송생의 위기를 알아채고 그를 구한다.
- ⑪ 도령은 처녀와 혼인하지 못해 병에 걸리자 대부인과 부인에게 사실을 고한다.

- ⑫ 감사가 병부를 잃고 처녀에게 사건의 처리를 묻는다.
- ⑬ 처녀는 감사가 중군과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알고 고의로 객사에 불을 내어 중군에게 밀병부를 맡기게 한 뒤, 병부를 찾아낸다.
- ⑭ 감사가 탄복하여 며느리를 삼고자 하니, 집안 사람들이 사실을 고한다.
- ⑮ 혼례를 치르고 상소하니, 임금이 탄환을 면천케 하고 벼슬을 제수하였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영랑용지가귀문>의 이야기는 신분이 낮은 여성과 상층 계급인 남성의 결연을 골자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대 『쇄어』, 『선언편』, 『성수총화』에 등장하는 <조생-도우탄의 딸> 이야기⁷⁾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⁸⁾ 그렇다면 <조생-도우탄의 딸>과 비교하여 <김영랑용지가귀문>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시된 서사단락의 ①~④까지는 <김영랑용지가귀문>과 <조생-도우탄의 딸>의 이야기 진행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생-도우탄의 딸>에는 조생이 여인에게 구혼하는 장면에서 직접 혼사를 나눈 것이 아니라 조생이 상사병에 걸리게 된 뒤, 여인과 정을 맺고 시를 주고 받는 꿈을 꾸다. 이후 한 노파를 통해 여인과의 만남을 간접적으로 추진한다. 노파는 자신의 외손녀인 것처럼 여인을 꾸며 조생과 대면 동숙하게 해주는 데, 이는 <김영랑용지가귀문>에서 도령이 직접 처녀를 찾아가 혼사를 논하는 장면과는 매우 다르다. 이 단락에서의 변개는 혼인에 있어서

7) <조생-도우탄의 딸>의 계열별 추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정명기의 논의를 참고할 것. 정명기, 「<조생-도우탄의 딸> 이야기의 의미 연구」, 『열상고전연구』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87~123쪽.

8) 권기성은 이 이야기가 <조생-도우탄의 딸>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삽화 배치의 변개를 피하고 있음을 간단하게 밝힌 바 있다. 권기성(2016), 앞의 논문, 179~180쪽 참고.

의 남녀 간의 직접적인 만남이 <김영랑용지가귀문>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후 조생은 여인과의 혼인을 부모가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을 염려해 다시 한 번 병에 걸리게 된다. 즉 제시된 서사단락의 ①에 해당하는 도령의 득병이 <조생-도우탄의 딸>에서는 ④ 뒤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김영랑용지가귀문>과 <조생-도우탄의 딸>의 주된 차이가 드러나는 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조생-도우탄의 딸>에서는 조생의 치병 뒤 여인이 집안에 들어가 감사내외에게 그간의 사연을 바로 밝힌다. 그 뒤 감사의 벗인 송진사가 혼사에 있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인을 자신의 딸로 꾸밈으로써, 사회적 시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조생-도우탄의 딸>에서는 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생과 여인이 아닌 노파나 송진사와 같은 보조 인물들이 작동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김영랑용지가귀문>은 혼사장애를 겪어 좌절하게 된 남성의 득병(④)뒤에 ⑤~⑩, ⑫~⑭의 새로운 유화가 첨가되어 <조생-도우탄의 딸>과는 다른 전개방식을 꾀했다.

새롭게 첨가된 유형의 이야기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여성의才智에 대한 모티프의 추가이다. 각각의 모티프는 ①수탉송사의 해결, ②송생의 납치 구출, ③병부사건의 해결과 같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는 기실 야담에 존재하던 기존의 모티프들을 따온 것이다.

<김영랑용지가귀문>, 『쇄어』, 『선언편』에 모두 나타나는 ⑥삼화, 곧 송진사(혹은 송생)과 관련된 추노 삼화는 송 흙종의 고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곧 『청구야담』 소재 <겁구주반노수형(劫舊主叛奴受刑)>과 『기문』 소재 <수간면사(修簡免死)>에도 등장하는 주요 삼화이다. ⑦는 연대본 『기문총화』 479화 <이만원(李萬元)>에 등장하는 병부모티프를 차

용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모티프는 기존에 모두 다른 서사에서 다른 주인공을 소재로 존재하던 것인데, 『양은천미』의 서술자는 기계적으로 이를 병치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의식을 공고히 하도록 배치했다. 그 결과 <김영랑용지가귀문>이 지향하는 주제의식 또한 <조생-도우탄의 딸>에 비해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조생-도우탄의 딸>에서 여성이 남성의 하소연에 의해 혼인에 성공하고, 이후 이 혼인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에 주목했다면, <김영랑용지가귀문>에서는 혼사장애의 극복에 있어 여성의 지혜와 관련된 여러 개의 모티프를 삽입함으로써 변별점을 마련했다. 이에 <김영랑용지가귀문>의 ‘감사’는 자발적으로 혼인을 허락하는 면모를 보인다. 결국 <김영랑용지가귀문>에 삽입된 여러 모티프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재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특정한 야담 서사체의 경우 삽화의 분리와 결합 또는 편자, 화자의 개인적 창조력에 의하여 그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⁹⁾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양은천미』의 편찬자는 전대의 이야기를 취택하고 다듬어 <김영랑용지가귀문>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품 속에 나타난 처녀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다.

저는 비록 출신은 천하지만 뜻만은 천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들은 말에 ‘갓추어 혼례를 하지 않고 결혼하면 첩이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음란하게 멋대로 놀아난 적이 없는데 어찌 첩으로 삼으려 하신답니까?¹⁰⁾

9) 정명기, 『야담의 변이양상과 의미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4~21쪽.

10) 生則雖賤, 志則不賤. 嘗聞‘奔則爲妾’, 未嘗淫奔, 何以妾爲?

무릇 인생에서 사람의 처지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꽃과 같아,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에 따라 더러운 자리가 인초 방식이 되기도 하고 인초 방식이 더러운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귀천이 어찌 정해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니, 재덕이 우선이고 지체는 그 다음입니다. 재덕과 지체가 둘 다 온전할 수 없다면, 마땅히 재덕을 논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체를 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청컨대 깊이 생각하여 주옵소서.¹¹⁾

<조생-도우탄의 딸>의 주제가 여성의 능력에 대한 재인식과 아울러 남녀 간의 결연을 매개하는 기준이 더 이상 신분 질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한 신분 제도의 그릇됨을 은연중 드러내 보이려는데에 있는 것¹²⁾이라면, <김영랑용지가귀문>은 남녀 간의 혼인에 있어 부수적 인물들을 제외하고 여성의 재지만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러한 주제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즉 남녀 간의 혼인의 문제는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티프를 차용하고 이를 덧대는 방식은 『청구야담』, 『동야회집』, 『차산필담』 등의 조선 후기 야담집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방식이므로 이를 『양은천미』만의 새로운 서술방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같은 모티프를 차용하더라도 일관된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랑용지가귀문>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의 강조와 주제 의식의 강화는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양은천미』의 편찬자는 아직 규명되지 않아 그 의도를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

11) 大凡人生門地 有如風花瀨茵, 一番風動, 瀨者爲茵, 茵者爲瀨. 人之貴賤, 何嘗之有? 夫婦, 人倫之始, 才德爲先, 門地爲後. 才德門地, 不可兩全, 則宜以才德爲論, 不宜以門地爲較. 請熟思之.

12) 정명기(1995), 앞의 논문, 122쪽.

기 때문에, 간접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비슷한 시기에 산출된 이해조의 『원앙도』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원앙도』는 동농 이해조가 <빈상설>의 연재를 종료한 다음날인 1908년 2월 13일부터 1908년 4월 24일까지 『제국신문』에 연재한 신소설이다. 연재가 종료된 지 7개월 후 1908년 12월 8일자 『제국신문』에 단행본 출판 광고가 최초로 게재되었지만 현재 전하지 않고, 현재 가장 오래된 판본은 1911년 12월 30일에 발간된 동양서원본이다.¹³⁾ 『원앙도』의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는 다음의 구절을 기점으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는데, 전반부의 이야기가 민씨의 아들 말불과 조판서의 딸 금취의 지혜 대결과 양 집안의 혼사결정에 있다면, 후반부의 이야기는 역적의 혐의로 몰락한 조판서의 딸 금취의 수난과 말불과의 재회에 초점이 있다.

이상은 지극과 그녀의 아름다운 밧탕과 령민헌 소견이 막상막하하야 사랑을 놀리고 귀신도 칙량치 못홀 흥동으로 선세의 숙험을 चु설갓치 풀고 빅년의 가약을 금석갓치 덩하야 만고의 괴이헌 일이됨을 기록하얏거니와 이하에는 그 인연을 성취하던 스적을 말하교자 호노라¹⁴⁾

『원앙도』의 전반부는 양덕군수 민씨와 조판서의 대립구도로 진행된다. 이들 집안은 선대의 원한 때문에 몇 대 간 서로 격면(隔面)하게 되었는데, 조판서가 본도 감사로 발령 받으면서 다시금 얽히게 된다. 이에 민씨는

13) 『원앙도』는 1908년 2월 13일자 제 2611호부터 4월 24일자 제 2670호까지 연재되었으며, 표기상 연재횟수는 54회이지만 실제로는 총 53회가 연재되었다. 이 중에서 제 39회 및 제 50회에 해당하는 3월 29일자 제 2649호와 4월 21일자 제 2667호는 지면이 유실되어 전하지 않지만, 단행본을 살펴보면 연재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강현조, 『이해조 소설의 텍스트 변화 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7.1, 한국근대문학연구, 2016, 116~117쪽.

14) 권영민 외 편, 『빈상설·흥도화·원앙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82~283쪽.

아내에게 조판서가 자신의 연명(延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연명은 조선시대에 원이 감사에게 처음 가서 취임 인사를 하던 의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도 처리 할 수 없게 된다. 즉 수령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엮들은 민씨의 아들 말불이 지혜를 내는데, 그것은 매화와 산월이라는 감사의 수청기생으로 하여금 감사의 병부를 흠치도록 하는 것이다. 병부는 군대를 동원할 때 쓰던 부신(符信)으로 이것을 소실할 경우 군문효수(軍門梟首)를 면하기 어려운 중죄였기에, 조판서는 안절부절 하게 된다. 이를 조판서의 딸 금취가 보고, 이른바 ‘연광정 화재 사건’이라는 계책을 내게 됨으로써 병부를 돌려받게 된다.

앞서 살펴본 <김영랑옹지가귀문>에서 알 수 있듯, 이 ‘병부사건’은 『기문총화』에 있던 짧은 일화이다. 이해조는 이를 차용하여 ‘말불’과 ‘금취’의 재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건으로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 인물의 기지를 보여주었던 일화를 변용하여 인물 간의 긴장 관계와 인연, 인물의 지혜로움을 복합적으로 담아내려 한 것은 기존의 존재하던 이야기가 작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전환되는 국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¹⁵⁾

『원앙도』 속 금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씨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그를 연광정에 불렀을 때, 수령의 인(印)을 몰래 훔친다. 그런데 민씨의 아들 말불은 이를 미리 내다보고, 수령의 인을 집안에 미리 감춰두어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곧 병부 사건을 확장시켜 추가로 덧댄 것이다. 사실을 알게 된 조판서와 금취는 민씨를 파면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옥사의 검시관으로 양덕군수 민씨를 임명하여 곤란에 빠뜨리고자 한

15) 주형예가 『원앙도』와 관련하여 『기문총화』의 삽화를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서술자는 야담과 같은 오락적 독서물의 향유자로서 이를 창작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형예, 『여성이야기를 통해 본 20세기 초 소설 시장의 변모』,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2011, 282~283쪽.

다. 민씨는 검관을 맡긴 공문을 보고, 전례대로 해결하고자 하나 알 수 없었다. 옥사의 내용은 이러하다. 가산 새별령에서 네 사람이 죽는 살인사건이 났는데, 한 명은 고개 너머 중턱에서 목에 칼을 꽂고 죽었고, 한 사람은 고개 이편 중턱에서 목에 칼을 꽂고 죽었으며, 고개 마루에는 두 사람이 빈 술병과 술잔을 놓고 죽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어찌된 영문일까. 민씨는 이를 해결하지 못해 답답해하는데, 아마도 그가 『소한세설』을 읽어보았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19세기 말엽 찬집된 것으로 추정¹⁶⁾되는 폐설집 『소한세설』의 3화 <대어무량 자살신(大禦無良自殺身)>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세 도둑이 훔친 재물을 나누지 않으려다가 흥계를 꾸미는데 두 명이 작당하여 한 명을 죽이고, 준비한 독약에 남은 두 명도 모두 죽게 되어 결국 잃어버린 사람이 재물을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원앙도』에서는 죽은 사람이 네 명으로 늘어났지만 사건의 추이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아마도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는 조선후기 야담, 폐설집에 자주 등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조는 이것을 적극 차용하여 말불이의 지체를 드러내기 위해 차용한 것이다.

요컨대 『원앙도』의 전반부는 민씨와 조판서의 집안대립을 말불이와 금귀의 지략대결로 표면화하였고, 이를 위해 야담과 폐설에서 차용한 모티프를 활용하여 ‘병부+도둑옥사’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원앙도』의 후반부는 『금고기관』 소재 <양현령경의혼고녀(兩縣令競義婚孤女)>의 후반부 구성을 차용한 것이다.¹⁷⁾ 다시 말해, 『원앙도』는 ‘병

16) 『소한세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들을 참고. 이승은, 「19세기 폐설의 변화와 『消閑細說』」,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 순천향대학교, 2014, 5~29쪽; 장현곤, 「『消閑細說』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7) 손병국은 당대 신소설이 독자들의 흥미를 고려했기 때문에, 한문에 능했던 이해조가 『원앙도』를 기술함에 있어 <兩縣令競義婚孤女>을 빈안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부+도둑옥사'의 전반부에, <양현령정의혼고녀>의 후반부가 더해진 작품인 셈이다. 이를 통해 서술자 이해조는 기존에 전해지던 이야기나 중국 단편 소설 등의 화소들을 차용·변개하여 작품을 새롭게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원앙도』는 <김영랑용지가귀문>의 서술방식과 일면 유사한 면모를 보이며, 이를 통해 <김영랑용지가귀문>이 보이는 변이의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작품 모두 이전에 발견되지 않는 '병부'라는 모티프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단순히 모티프를 차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이를 변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혼사장애라는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각각의 차용된 모티프가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랑용지가귀문>의 '수탉 옥사'나 『원앙도』의 '도둑 옥사' 또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물론 이것이 두 작품 간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해조가 '야담'의 작법을 흉내 낸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원앙도』가 『양은천미』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재되었고, 또 『양은천미』의 편찬자가 야담집을 편찬하는데 있어 신문의 기사를 참조했다는 점¹⁸⁾, 동시에 전대에는 발견되지 않는 유사한 작법과 주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양은천미』의 편찬자가 당대 유행하던 문학의 작법원리를 고려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양은천미』의 편찬자가 적어도 당대의 문화적 지형도에 매우 익숙하던 일련의 문화 소비층이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의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손병국, 『『鴛鴦圖』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18) 권기성(2016), 앞의 논문, 188~190쪽.

3. 번안 소설의 수록과 부분적 초점화

: 〈봉황대회금강춘월〉과 〈소지현나삼재합(蘇知縣羅三再合)〉

『양은천미』는 기존 야담에 수록된 여러 모티프들을 차용·변개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경우 외에, 익히 알려져 있던 원작품을 비교적 그대로 수록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야담이나 고전소설 중 <옥소선 이야기>, <정향전>, <운영전>에 해당하는, 6화 <일지홍격부립공명(一枝紅激夫立功名)>과 14화 <정향교계시대군(丁香巧計侍大君)>, 31화 <운영유한기유생(雲英遺恨寄柳生)> 등이 그것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금고기관』과 같은 작품들을 번안해서 수록한 사례들도 있는데 4화 <이부사계전황보고(李府使計全皇甫孤)>가 여기에 해당한다.¹⁹⁾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7화 <봉황대회금강춘월>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봉황대회금강춘월>에 대해서 이렇다 할 분석을 진행한 바 없었는데²⁰⁾, 필자가 살펴본 바 이 작품에 대한 접근은 생각보다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봉황대금강춘월>의 경계를 함께 살펴보자.

- ① 고려 공양왕 때 부제학 정달중이라는 사람이 금강산 아래沼를 파고 취유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다.
- ② 정덕현과 정필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덕현의 용모와 문장이

19) 이 유화는 정명기에 의해서 『금고기관』 3화 <등대운귀단가사>와 비교 검토되었던 바 있다. 정명기, 『韓國 野談類文學과 中國側 文獻資料의 關聯 樣相 - 『揚隱闡微』와 『今古奇觀』의 關係를 中心으로 -, 『어문학교육』 31, 한국어문교육학회, 2005, 445~476쪽.

20) 단지 4화 <이부사계전황보고>와 함께 거론되어, 『소씨전』 계열의 작품, 또는 『금고기관』 소개 작품과의 영향, 교류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작품'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신성·정명기(2000), 앞의 책, 9쪽.

남들이 비해 출중했다.

- ③ 하루는 덕현이 산을 올랐다가 한 노인에게 ‘금강춘월’이라는 옥피리를 받고 몇 곡조를 배웠는데 노인은 사라졌다. 덕현이 이를 부친께 알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 ④ 외조부 이상서가 경기도 강화부에서 회갑연을 열자 덕현이 어머니를 모시고 잔치에 참여하였으나 이상서가 잔치를 열지 못하게 했다.
- ⑤ 여흥이 미진하였던 덕현이 절해고도에서 표류하여 소자사의 딸과 계집종을 만났고, 연분을 맺어 강화도에 함께 돌아와 혼례를 치렀다.
- ⑥ 소씨는 채주와 부덕을 겸비하였다. 밭에 사는 잉어에게 늘 먹이를 주니 잉어가 꿈에 나와 자신이 남해 용왕의 딸임을 밝히며 은혜를 갚을 것이라 말했다.
- ⑦ 덕현이 음직으로 남해의 수령이 되어 고을을 잘 다스린 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백성들이 아쉬워했다.
- ⑧ 海港에 이르렀을 때, 해적들을 만나 가족이 모두 물에 빠져 헤어지게 되었다.
- ⑨ 용왕의 딸이 나타나 소씨를 구출하여 망운암에서 10년을 의탁할 것을 말해주었다. 소씨는 죽으려 했으나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뒤이어 한 여승을 만나 암자에 머물렀다.
- ⑩ 얼마가 지나 해산할 날이 다가오자, 여승이 장대복이라는 농민의 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로 하여금 아이를 키우게 하도록 권했다.
- ⑪ 소씨가 그 말을 따라 소정을 낳았는데, 장대복 부부가 소정을 안고 도망가 버렸다.
- ⑫ 10년이 지나고 장대복의 이웃인 이종초가 남해의 어망에서 얻은 피리를 주며, 소정을 사위 삼고자 했다.
- ⑬ 소정이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가는 길에, 일정이 연기되어 금강산에 유

- 람 차 방문했다가 우연히 취유정에 이르러 정달중을 만나게 되었다.
- ⑭ 정달중은 소정의 모습이 덕현과 닮아 있음에 놀랐고, 금강춘월 피리를 본 뒤 그 연유를 물었으나, 자세한 바를 알지 못해 이상해 했다.
- ⑮ 소정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인륜을 알지 못한다며 소정을 꾸짖었다. 떠나는 소정에게 정달중은 다시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다.
- ⑯ 소정이 급제하여 영남어사로 취유정에 들리자, 정달중이 덕현과 소씨의 사건을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 ⑰ 소정이 영남에서 정탐하다가 해적의 소굴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이종초가 예전 덕현과 소씨를 해하고 피리를 얻게 된 연유를 엿 듣게 되었다. 이에 어사출두를 하여 옥사를 살피 심문하였다.
- ⑱ 며칠 뒤 두 여승이 자식을 찾아달라는 原情을 하자 소정이 친어머니임을 알게 되었다. 이종초 등 해적들은 벌을 주었고 장대복에게는 천금을 주어 보답하니(?) 임금이 포상하였다.
- ⑲ 외가의 소식을 탐지하고자 남경에 사신을 요청하여 갔다가 소자사가 이사를 갔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봉황대에 올라 옥피리를 부는 도중 정덕현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듣게 되었다.
- ⑳ 다음날 함께 소자사의 집에 가서 사정을 아뢰고, 조정에 돌아와 사직하고 귀향하니 가족들이 모두 기뻐하며 취유정을 취락정으로 고쳤다. 그 뒤 모두 신선이 되어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제시된 서사단락을 통해서, 이 작품은 기존에 지적한 『소씨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진 『소씨전』은 남녀 주인공 장한림과 소소저의 이합과정 및 이에 따른 처첩갈등이 중심내용인 고전소설로, 『소부인전』, 『장학사전』, 『조생원전』 등의 다른 제목으로 지칭되는 가정소설의 하나이다.²¹⁾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소씨

전』이 이 작품을 가리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명에 따라 보건대 아마도 <봉황대회금강춘월>은 『소씨전』과는 무관한 작품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이 작품은 명대의 소설집 『경세통언(警世通言)』에 수록된 11화 <소지현나삼재합>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경세통언』은 명말 풍몽룡이 편찬한 『유세명언(諭世明言)』(1621), 『성세항언(醒世恒言)』(1627)과 함께 『삼언』의 하나로, 훗날 『금고기관』이라는 명대 단편소설집에 추려지기도 하는 백화체 단편소설이다.²²⁾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소지현나삼재합>은 해적에 의한 가족 간의 분리와 시련, 결합 양상 등의 사건 전개틀을 보이는데, 이 작품이 <봉황대회금강춘월>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물론 『양은천미』의 편찬자가 『금고기관』을 번안해 수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봉황대회금강춘월>은 『금고기관』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일 수도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대자족본(大字足本) 등을 참고해 보았을 때, 『금고기관』에는 이 이야기가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경세통언』의 <소지현나삼재합>을 직접 번안한 것으로 그 경로를 짐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소지현나삼재합>은 명대 전기인 『羅衫記』나 희곡 『白羅衫』 등으로 개작되기도 하고, 일찍부터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월봉기』, 『옥소기연』, 『강릉추월』, 『소학사전』 등의 다양한 번안·파생작을 남기기도 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류 소설들은 3~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²³⁾,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공통담’과 유형별

21) 박순임, 성현경, 『『사씨남정기』와 『소씨전』의 대비』,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회, 1986, 154~171쪽.

22) 이경림, 『근대 초기 『금고기관』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7, 한국근대문학회, 2013, 230쪽.

23) 대단히 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나 대표적 논문들만 제시하기로 한다. 심재숙, 『<소운전>-<월봉기>계 작품군의 유형변이와 담당층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개별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는 의견이 동일하다. 전상욱에 따르면 작품군 전체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서사의 내용은 ‘가족이합’에 있는데²⁴⁾, 그 공통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벼슬을 제수 받고 임지로 부임하던(임기를 마치고 귀향하던) 부모가 수적에게 화를 당한다.
- ② 부친은 물에 던져지나 죽지 않고 살아난다.
- ③ 임신 중이던 모친은 수적에게 잡혔다가 조력자의 도움으로 탈출한다.
- ④ 모친은 절에서 자식을 낳은 후 버린다(양자로 준다).
- ⑤ 버려진 자식이 수적의 아들로 성장한다.
- ⑥ 과거를 보러 가던 자식이 조모(조부)집에 들러 자신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 ⑦ 등과하여 어사가 된 자식이 친부모를 만나고 수적을 징치한다.²⁵⁾

그런데 변안류 소설들은 위의 공통담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작품마다 개별적인 서사담인 결연담이나 군담 등을 통해 이야기의 새로운 후반부를 만들어 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봉황대금강춘월>과 일

논문, 1990; 이필우, 「<蘇知縣羅三再合>계 변안소설의 실상과 상호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육재용, 『월봉기의 이본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전상욱, 「<월봉기군> 소설의 작품세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이화, 「『蘇知縣羅衫再合』과 『蘇知縣羅衫再合』계 '繡案類' 소설의 比較研究」,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4) <월봉기>군 소설의 전체적인 서사전개는 水賊을 懲治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함께 있어야 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헤어져 있다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시 만난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離散의 원인을 제공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수적이 등장하는 것이기에, ‘복수담’보다는 ‘가족이합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전상욱(1995), 위의 논문, 17쪽.

25) 육재용, 「강릉추월전의 창작성 고찰」,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2006, 260쪽.

정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내용의 차이는 크다 하겠다.²⁶⁾

즉 <봉황대회금강춘월>의 형성경로는 쉽게 속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단계에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경로를 상정하든 <봉황대회금강춘월>은 번안의 자국화 양상을 꾀한다는 점에서 ‘강릉추월계’ 작품들과 유사하지만,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군담과 결연담 등을 모두 삭제하거나 배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봉황대회금강춘월>은 군담이나 결연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기 보다는, 수난으로 인한 가족이합(家族離合)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황대회금강춘월>의 실제 서술양상을 살펴보아도 이 같은 특징은 쉽게 발견된다. <봉황대회금강춘월>은 다른 소설들과 비교하여 장면의 묘사와 서술의 구체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같은 점은 ‘야담’이라는 갈래가 지닌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터다.²⁷⁾ 『금강취유』와 비교해보면 <봉황대회금강춘월>의 간략함은 더욱 분명해진다. 허다한 사례 중 하나만을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지면의 분량 상 『금강취유』는 서사단락으로, <봉황대회금강춘월>은 원문으로 사례 단락을 제시하도록 한다.

26) 작품배경과 인물의 한국적인 설정, 제목의 유사성 등은 번안작 중 ‘강릉추월계’ 작품들과 유사하지만 일면 거리가 있다. 한편 1915년 간행된 『금강취유』는 <봉황대회금강춘월>과 거의 유사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은 차후 ‘월봉기’ 혹은 ‘강릉추월계’ 작품들과 더불어 <봉황대회금강춘월>과 『금강취유』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지면을 달리하여 논구하도록 한다.

27) 野談은 삶의 한 단면을 그려내는 데, 그 배경은 日常에 두는 것이 一般의이다. 野談은 이야기 주변의 결가지를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그 意味를 傳達하는데 必要한 窮極의 目標點을 向해서만 專一하게 나아가는 傾向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野談에서 이야기의 主題와 直接 關聯이 없는 附隨 挿話가 疏略하게 處理되는 것은 이러한 理由에서 비롯된다. 정명기(2005), 앞의 논문, 459쪽.

사례단락	『금강취유』	<봉황대회금강춘월>
해적 결박과 옥사	① 봉내가 소청의 소식을 듣고 의기양양해 하고, 봉내의 딸 역시 방약무인하다. ② 소청이 계락을 내어 봉내를 잔치에 초대 한다. ③ 봉내가 동생 칠인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 했다가 속수무책으로 결박당하다.	抽身急出, 發卒捕縛 並送縣獄 卽夜露 踵 按獄審問 南海附近 一時驚動
해적 징치	① 소청이 봉내를 추궁하여 옥소를 얻은 까 닭을 밝히고 봉내를 효수하다. ② 봉내의 심간으로 제문을 지어 수중고혼 을 위로하다. ③ 봉내의 가족이 모두 죽고, 봉내는 관속의 자식들에게 능지처참 당하다. ④ 장대복을 불러 전일의 죄를 물으나, 양육 한 공을 들어 속죄하다.	李宗楚等 按法處決, 張大福卽與之報 酬千金.

위의 표와 같이, <봉황대회금강춘월>에서 해적 결박과 옥사 및 해적의 징치에 대한 장면의 기술 등은 『금강취유』에 비해 극히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청이 결박하게 되는 해적(봉내/이종초)은 옥소를 전해준 장본인으로, 기실 그의 장인에 다름 아니다. 아직 정식 혼례를 치르기 전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집안 간에 혼약을 맺어온 점을 생각해보면 사위가 장인을 처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이에 『금강취유』에서는 해적과 그의 딸이 원래부터 방약무인한 성격이었음을 드러내, 소청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한편, 소청이 해적을 결박하는 과정, 징치하는 장면 등에서는 ‘관리’로서 소청의 뛰어난 면모가 드러난다. 계락을 내어 해적들을 일시에 잡아내거나, 자신의 죄업을 부인하는 해적의 시인을 끝내는 받아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적을 징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처벌의 강도가 매우 잔인한데, 따라서 뚜렷한 권선징악의 면모를 보여주는 복수 행위가 서술되어 있다.

<봉황대회금강춘월>에서는 이러한 장면에 대한 서술이 극히 축약되어

있다. 이는 <봉황대회금강춘월>이 ‘소정’의 뛰어난을 언급하여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부여할 의도가 없었으며, 해적에 대한 복수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사건의 뼈대정도를 간략하게 제시하는 정도로 지나간 것이라 하겠다. 반면 특정 대목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 지나칠 만큼 자세히 묘사하거나 서술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양은천미』의 편찬자가 이야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늠케 할 것이다.

하루는 밤은 고요하고, 봄 달은 온 산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절 뒤편에서 피리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마음속으로 이상히 생각하여 발가는 대로 산을 올랐다. 산을 오르니 소나무 형상에 학의 기골을 하고, 지초의 눈썹을 하고, 깃으로 옷을 해 입은 한 노인이 즐거이 맞이하였다. “미리부터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음률을 몰라서는 안 되니, 자네는 시험 삼아 이것을 배우게.” 덕현이 노인이 주는 옥피리를 받아 보니, ‘금강춘월’이란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노인이 몇 곡조를 가르쳐 주다가 “내일 이맘 때 또 와서 배워라”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이처럼 몇 달을 계속하니, 모든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에 노인이 옥피리를 주며, “너는 이 피리를 잠시라도 몸에서 떨어뜨리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는 이내 표연히 사라져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 하다가 피리를 가지고 돌아와 부제학에게 아뢰니 부제학 역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²⁸⁾

위 장면은 덕현이 성장하고 난 후, 선인을 만나는 장면을 초점화한 것

28) 一日, 夜靜空門, 春月滿山. 忽聞寺後笛聲飛來, 心竊異之, 信步上山, 有一老人, 松形鶴骨, 芝眉羽衣, 欣然而迎曰: “固知汝之來也. 人生在世, 音律亦不可不知, 汝試學此.” 德顯見其玉笛, 鏤以金剛春月四字. 那老人教之數曲曰: “明日此時, 又來學習.” 如是數月, 學已成矣. 老人仍以玉笛與之曰: “汝以此笛, 不可斯須去身.” 言罷, 飄然而去. 遂不復會. 不勝悵然, 携笛而還, 告于副學, 副學亦異之.

이다. 신비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 배경 묘사와 선인의 풍채를 핏진하게 묘사했고, ‘금강춘월’이라는 옥소를 획득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편찬자는 다른 장면들은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왜 이 장면에 대해서는 공을 들여 서술하고 있을까. 그것은 옥소가 훗날 소정과 할아버지인 부제학, 아버지 덕현의 만남을 중재하는 매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 과거가 있어 소정은 행장을 꾸려 시험장으로 떠났는데, 시험 시기가 잠시 늦춰졌음을 알았다. 소정은 서울에 머물러 있기도 무료하여 명승지를 유람코자 서울에서 바로 금강산으로 갔다. 명승고적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취유정에 이르게 되어, 부제학께 인사를 드렸다. 부제학은 소정의 모습과 말씨가 덕현과 한결 같자 몇 번을 계속 보면서 의아해하며 슬피하였다. 소정도 인륜의 기운에 느껴 자연히 마음이 움직여 달을 보고 난간에 기대어 옥피리를 불며 번민을 떨치려 하였다. 겨우 두어 곡을 불자 부제학이 소리 내 크게 울며 급히 나와 피리를 빼앗아 달빛에 비추어 자세히 보니, 피리에 금강춘월이란 네 글자가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부제학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이것은 금강산 신령이 내 자식에게 준 것이네. 10여 년 전에 내 자식이 남해 수령이 되어 갈 때, 이 피리를 가지고 제 아내와 임소에 부임했네. 그가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올 때, 배를 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육지에 나왔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네. 15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막연하게나마 듣지 못했네. 지금 이 피리를 보니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겠네. 이 피리는 어디서 얻었는가?”²⁹⁾

29) 時有科令，蘇鄭倣裝赴試，試期差退。蘇鄭留京無聊，欲周覽勝地，自京師，直入金剛，尋訪名勝，轉到聚有亭，拜鄭副學。副學見蘇鄭儀形言辭，一如德顯，看看疑訝，不勝悲泣。蘇鄭亦倫氣所感，自然動心，對月憑欄，吹笛撥悶。纔弄數聲，副學放聲大哭，急取出笛，乘月諦視，則金剛春月四字，分明鑄在。因垂泣而言曰：“此是金剛山靈之與吾子者，十餘年前，吾子爲南海守，携此笛，與其妻，同赴任所，及其解官歸來，只聞乘船之報，未聞出陵之信。于今十五年，生死存沒，漠未聞知。今

이날 밤에 무료하여 봉황대에 걸어 올라가 한가로이 옥피리를 불어 흥을 돋우고자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엎어지고 자빠지듯 봉황대로 올라와 피리를 빼앗고 울면서 말했다. “이것은 금강산 선옹이 나를 가르치던 것으로 내게 준 것인데, 남해 바다에서 이 피리를 잃어 버렸소. 지금 이 피리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두 사람이 서로의 사정을 하소연하다가 비로소 부자가 서로 만났음을 알았다. 덕현이 말했다. “내가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떤 물건에 업혀 나오다가 마침 월남국 상선을 만나 함께 월남국으로 돌아가 그 사람의 가정교사가 된지 어느덧 10여년이 되었다. 처가를 뵈러 어چه 금릉에 도착했는데, 처가가 이사를 했더군요. 밤이 되니 달빛이 밝아 천천히 걸어 봉황대에 오르는데 갑자기 피리소리가 들려와서 부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 아닐 수 없구나.”³⁰⁾

소정은 훗날 옥소를 통해, 부제학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 또한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강릉추월’계 다른 작품들에서는 아버지 덕현이 타국(월남)에 유리되어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되는지 자세히 서술된다. 그러나 <봉황대회금강춘월>에서는 이 같은 서술을 아버지의 발화 속으로 단순히 편입시켜 전달할 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옥소’를 통한 기이한 만남, 즉 서두에 제시된 신비한 옥소가 가족 간의 이합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황대에서 금강춘월로 인해 만나다.’라는 제목과 같이 『양은천미』의 편찬자는 다른 부분들을 과감하게 축약하면서 옥소를 통한 가족 간의

見此笛，不勝悲苦。不知此笛，何處得來也?”

- 30) 是夜無聊，步上鳳凰臺，聞吹玉笛，聊以遣興，忽有一人，轉倒登臺，攬笛涕泣曰：“此是金剛山仙翁教吾，遺吾者，南海海中，遺失此笛，今歸于君，君是何人?” 彼此相訴，始知父子相逢。德顯曰：“一自投海，有物負出，適遇越南商船，同歸于越，爲人塾師，居然爲十餘年矣。欲訪妻家，昨到金陵，妻家又移。夜來月色，緩步登臺，忽聞笛聲，父子相逢，無非前定。”

만남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봉황대회금강춘월>은 중국의 <소지현나삼재합>이나, ‘강릉추월’계 작품들에 영향을 받은 편찬자의 수용을 통해 『양은천미』에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것을 저본으로 하였든, <봉황대회금강춘월>은 인명과 지명, 사건의 전개에 있어 중국의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지명을 사용하려 했다. 동시에 여타의 유사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군담과 결연담은 모두 소거하였다. 이는 가족이합이라는 주제를 초점화하기 위해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서술의 분량을 축약하고 확대하는 데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양은천미』의 편찬자는 당대 유행하던 변안 소설을 활용하면서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한 주제로 작품의 내용을 변개하였던 것이다.

4. 통속적 서술방식의 사용과 시대성의 내밀화

『양은천미』에 나타나는 두 작품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양은천미』의 편찬자가 전대의 작품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의도적으로 작품을 변개하면서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변화의 방향에 따라 나타난 『양은천미』의 서술특징을 ‘통속적 서술방식’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통속’이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문학 담론에서는 때로는 공통적인 것 때로는 저급한 것의 경계를 드나들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통속성’에 대한 의미의 명확성이 늘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통속성이란 예술성과 반대되는 저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보다는, 대중에게 친숙한 공통적인 특성에 가까운 개념

을 의미한다. 즉, 근대 초기의 ‘통속’ 개념을 살펴보면, 특정 계층에게 점유되어 있던 지식과 언어를 공통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대중’의 개념과 연관되어 ‘대중문학’과 유사한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기도 하는데³¹⁾, 본고에서 사용할 통속성의 의미도 이와 근접하다. 따라서 『양은천미』의 ‘통속적 서술방식’은 『원앙도』나 변인류 소설들을 대고 참고하면서 당대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문학의 세계를 본뜨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통속적 서술방식’과 함께 유념해야 할 또 하나의 양상은 『양은천미』가 그려내는 시대성이다. 『양은천미』의 편찬자는 익숙한 문학세계의 차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당대의 변화되는 시대상을 포착하고자 했다. 다만 이 시대성은 좀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이는 서사 내에 은밀하게 갈무리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영랑용지가귀문>은 전대의 야담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현부담이라는 주요 모티프를 차용하면서도, 여성인물의 재지를 적극 드러내어 전대에 비해 자유 혼인의 중요성을 더욱 드러내고자 했다. 이와 같은 주제의식은 유사한 서술방식을 표방하던 이해조의 신소설 『원앙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바와 같다. 『원앙도』가 연재될 당시 『제국신문』은 부녀자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고 있었기에³²⁾ 특히 여성과 관련된 여인의 수난과 혼사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08년 12월 8일자로 『제국신문』에 게재된 『원앙도』의 광고를 살펴보면 이해조가 당대 독자층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당대 소설이 무엇을 지향하고자 했는

31)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42~43쪽.

32) 이해조의 소설에서 구어체적 표현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초기에 발표된 그의 소설 대부분이 부녀자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은 『제국신문』에 연재되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원식, 『한국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64~165쪽.

지가 어렵פות이 나타난다.

본 소설은 삼대 특식이 있스니 일 말불의 총례와 금궤의 영오흠은 후진 청년의 스상을 열어 줄만하고 일 조감스의 혐의를 과히 본 것과 산월의 의리를 저바림은 남녀 사회에 경계가 될 것이오 일 안선달의 보은흠과 윤군슈의 즈션흠은 귀천간 교제에 모범이 될지라 그 착착흔 재미가 이 소설 보는 슝름으로 하야곰 칙상을 두다리며 괴이흠을 칭도홀만 호오³³⁾

이해조는 『원앙도』가 당대 청년의 사상을 열어줄 뿐 아니라, 남녀 사회의 경계가 되며, 귀천 간 교제에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효용을 강조했다. 특히 서사를 통한 ‘재미’에 주목하여 당대의 폭넓은 소설 독자들을 포괄하고자 했는데, 이는 그가 계몽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흥미성과 대중성을 중요시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그는 독자층이 익숙하게 여기는 이야기의 화소들을 적극 차용하여 독자들을 유인했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고전적 세계관을 답습하면서 통속적 문학을 지향하고자 했다.³⁴⁾

당대의 소설이 집단의 운명이나 가치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해가면서도 여전히 고전적 세계관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즉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서사’에 관심이 경도되어 가면서도 여전히 구시대적 가치관의 자장 안에 놓여 있던 당시 독자들의 취향과, 그것을 추종하는 소설 작가들의 현

33) ‘중앙서관 광고’, 『원앙도』, 『제국신문』, 1908.12.8.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5, 123쪽에서 재인용하였음.

34) 이해조는 몇 가지 전략을 통해 독자들을 위한 글쓰기를 시도하는데, 하나는 <소양정>이나 <탄금대>처럼 『금고기관』에 속해 있는 단편들만이 아닌 다른 고전 소설들의 차용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물의 설정이나 화소 등 서사의 차용을 단편화하여 원래 한문단편의 맥락으로부터 완전하게 탈락시키는 것이었다. 송민호,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82쪽.

실인식의 한계가 동시에 작용했던 것이다. 때문에 소설의 소재들 역시, 젊은 남녀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이르는 혼사모티프 내지는 첩의 횡포, 계모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정 내의 음모와 갈등과 같은 통속적 소재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이러한 소재에 집중하는 현상 자체는 당시 독자 대중의 취향에 대한 작가들 나름의 현실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남편과 안희란거슨 평상에 쓰고 단거슬흙씩 건디고 만스를 서로 의론 하야 집안 일을 하며 서로 밋고 서로 공경 하고서로 스랑 하야 안히는 남편이 무슴 일을하는지 알고 남편은 안희가 무슴 일을 하는지 알아 서로 돕고 서로 혼슈 하야 세상에 데일 죠흔 친구 궂치 지내야 홀터인디 죠션 사름들은 당초에 안희를 엿을 쎄에 그 부인이 엿던 사름인줄도 모르고 녀편네가 그 사나회를 엿던 사름인줄도 모르면서 녀의 말만 듯고 혼인 할 쎄 상약 하기를 들이 서로 스랑 하고 공경 하며 밋부게 평상을 궂치 살자 하니 이런 쇼쥬흔약속을 서로 하며 서로 보지도 못하고 서로 성품이 엿던지 모르고 이런 약조들을하니 이리케 혼 약조가 엿지 성실이 되리요...(중략)...사름이 스물 이삼세가 되여야 겨오 지각이 나고 세상이 엿던줄을 알고 울코 그르코 즈끼가무슴 일을 하는지 아는 거슬 조곰만흔 어린 으희들을 압제로 혼인을 식혀 서로 살나 하니 이 으희들이 어려슬 쎄에 혼인이무엇슨줄 모르고 부모가 흐란디로 흐엿거니와 지각들이 난 후에는 후회 하는 사름들이 만히 잇는지라 그런 고로 음심 잇는사나회들은 첩을 엿고 음형을 하는 폐단이 칭기는거슨 다름이 아니라 즈끼의 안희를 춤 스랑 하지 아니 하는거시오³⁶⁾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부부가 되거나, 부모의 뜻에 의해 결혼하는 당

35) 박혜경, 『신소설의 통속화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한국현대문학연구』 19, 한국현대문학회, 2006, 210쪽.

36) 『논설』, 『독립신문』, 1896.06.06.

대의 풍속을 비판한 1896년 6월 6일자 『독립신문』 논설은 당대 혼인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식의 한 단초일 것이다. 『안의성』의 주인공 상현의 말을 빌리자면, “그 전에 양반은 양반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하던 대신에 지금은 우매한 자는 우매한 자끼리, 지식 있는 자는 지식 있는 자끼리 결혼할 것 같으면 좋지 않겠습니까?”³⁷⁾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원앙도』나 <김영랑용지가귀문>의 사례는 당대의 소설이나 야담이 전래의 서사를 활용해 새로운 작품세계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하면서도³⁸⁾, 전래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지향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대 근대 독자들이 근대적 욕망과 재래적 가치관의 충돌에서 겪었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의 인식에 대한 변화와 자유연애에 대한 추구는 당대의 경험적 현실에 걸 맞는 통속적 주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⁹⁾ 『양은천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뛰어난 재지를 발휘하는 동시에, 재가에 당당하거나 자신의 사랑을 구애하는 데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개인의 욕망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⁴⁰⁾

37)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38쪽.

38) 전래 서사 1편이 활자본 소설 1편으로 수용, 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수의 서사가 활자본 소설 작품 1편에 조합의 형태로 수용, 변전된다는 사실로부터 이 시기의 활자본 소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래 서사를 활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강현조, 『〈단발령〉과 〈금상첨화〉의 전래 서사 수용 및 변전 양상 연구』,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117쪽.

39) 박혜경, 『신소설에 나타난 통속성의 전개 양상』,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296쪽.

40) 박상란은 1910년대의 여성상이 다양한 방면에서 양산되는 현상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1910년대의 ‘자유연애론’은 1920년대의 성의 해방, 이혼의 자유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페미니즘 물결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이에 재가 개인의 낭만적 애정담을 필두로 한 애정소설이 봄을 이룬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봉황대회금강춘월>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봉황대회금강춘월>이 당대 유행하던 <소지현나삼재합>과 변안류 소설들을 대거 참고한 것은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담의 의미가 당대 조선의 배경과 적합하다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즉, 변안류 소설들의 익숙한 흥미성 뿐 아니라, 가족의 이산과 재합이라는 소재가 역사적 전란을 겪었던 당시 한국 민중들에게 크게 공감될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자신의 아픔과 체험으로 동일시화되었기 때문일 텐데, 이 같은 양상은 36화 <김연광동방재회기처(金演光洞房再會其妻)>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김연광동방재회기처>는 당대의 고전소설인 『서진사전』, 신소설인 『마상루』, 1904년 9월 14일에서 15일에 걸쳐 『대한일보』에 연재된 <김씨피난>과 모두 동일한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작품이다.⁴¹⁾ 배경이 임오군란이나, 병인양요나 와 같은 차이점은 있지만, 당대의 환란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가족의 이산과 재합을 그린 작품이 소설의 주요한 소재가 되었다.

당대의 독자들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접하면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과 일제의 식민지 하라는 시대적 배경 속 가족의 피난기를 공감하며 읽었을 터다.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자들에게 피난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공감의 폭이 넓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가족’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⁴²⁾ <봉황대회금강춘월>이

고 보았다. 박상관, 『신작 구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22~33쪽.

4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정보라미, 『『마상루』계 피난서사 자료의 상호관계 재고』, 『우리문학연구』 45, 우리문학회, 2015, 159~195쪽.

42) 권혁래, 『신작 구소설 <서진사전>에 그려진 피난자의 형상과 현실인식』, 『온지학호』 14, 원지논총, 2006, 307쪽.

형상화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 주제의식 또한 이 지점을 벗어나지 않는다. 배경은 ‘고려’이지만, 일제 강점기 독자들은 이를 ‘현재’로 읽게 되기 때문이다. 즉 『양은천미』의 편찬자는 당대에 유행하고, 공감화 되던 가족 이합의 서사를 텍스트 내로 적극 편입하면서 독자들에게 익숙한 주제를 제시해 주었다 하겠다. 또한 어떤 의미나 의식이건 간에 무대와 인물을 중국식으로 설정한 관습적 관례를 버린 자체가 근대적 민족주의로의 의식이 전환되는 추세와 연관⁴³⁾되고 있다는 주장을 고려해본다면, 『양은천미』의 편찬자는 당대의 시대적 상황 또한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컨대 『양은천미』에 나타나는 통속적 서술방식이란, 당대의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문학장르의 차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작품이 근대적 의식과 세계를 보이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적어도 『양은천미』 전반을 통틀어 모든 작품의 배경과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옛날의 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대적 변화를 충분히 포괄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까지 미치지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김영랑옹지가귀문>과 『원앙도』가 유사한 서술원리를 공유하고 있어도, <김영랑옹지가귀문>에는 『원앙도』의 후반부처럼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하는 장면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양은천미』에는 표면적인 시대성은 온전히 소거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작품이 지향하는 주제의식의 너머에는 당대의 변화된 시대성이 반영되어 있는 바, 이것은 『양은천미』의 편찬자가 무조건적 ‘고담’의 지향이 아닌 내밀화된 형태로의 시대성을 염두 해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표방하는 방식은 당대의 문학 유행을 따르는 철저히 통속적인 형태였지만, 전유된 시대상이 작품 속에 구현된 것만은 분

4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8, 480쪽.

명하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양은천미』가 표방한 서술체적 특징과 주제의 통속화가 지니는 의미는, 고담을 전제하는 여타의 야담집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고, 20세기 초 필사본 야담집으로서의 독특한 위상도 인정된다.

5. 결론

통속적 허구는 기본적으로 ‘독자와 친숙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그 진실감을 조성한다.⁴⁴⁾ 그것은 말 그대로 독자들이 몸담고 있는 풍속의 세계와 통하는 성질, 다시 말해 독자들의 세속적 관심사를 반영하고 그들의 보편적 가치관에 부응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속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기존의 관습을 추구하고 독자들의 대중적 관심사에 편승하는 안이한 순응주의적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1910년 당시의 상황은 급조된 근대성과 체화된 전근대적 정서 간의 불협화음이 표면화 되던 때다. 더구나 당시의 일제 치하라는 시대적 특수성은 문학의 자기 검열과 시대 반성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위론적 준거틀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문학의 완성도나 가치지향을 평가절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일종의 시대성예의 강박이라 한다면, 20세기 초 야담에 나타나는 통속성 역시 야담의 한계 이전에 근본적으로 야담의 만들어진 시대 그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야담은 시대의 욕망과 잔흔을 어느 장르보다 사실적으로 그리며 성장

44) 양승민, 『한문소설의 통속성』, 보고사, 2008, 41쪽.

45) 박혜경(2006), 앞의 논문, 297~298쪽.

해 온 조선 후기의 산물이다. 이 시기 야담에 근대적 활력이 유지되지 못했던 것은 시대를 담을 수 없었던 특정 상황 속에서 통속을 지향하는 세계로 천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양은천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근대를 전경화하지 못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고담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들테면 시대의 경험은 조선 후기 야담을 존재하게 했던 주요 동력이지만, 그 시대성이 가리키는 지점에 항상 ‘전근대’의 대립항으로서 ‘근대’를 설정해 두고, 근대로 향하는 욕망이 표면화 된 작품만을 추수해 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을 반성해 본다. 야담이 시대의 경험을 오롯이 보여주는 장르라면, 『양은천미』가 보여주고 있는 서술체적 특징은 불가항력적 시대의 환경 속에서도 내밀화 된 시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20세기 초 필사본 야담집이 존재할 수 있었던 방법은 아니었던가. 근대전환기 야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1~391쪽.
- 권영민 외 편, 『빈상설·홍도화·원양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376쪽.
-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5, 1~581쪽.
- 양승민, 『한문소설의 통속성』, 보고서, 2008, 1~305쪽.
- 이신성·정명기 역, 『양은천미』, 보고서, 2000, 1~326쪽.
- 이윤석·정명기, 『구활자본 야담의 변이양상 연구』, 보고서, 2001, 1~352쪽.
-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12, 경인문화사, 1987.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8, 1~628쪽.
- 최원식, 『한국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402쪽.
-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9~48쪽.
- 강현조, 「이해조 소설의 텍스트 변화 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7.1, 한국근대문학연구, 2016, 99~163쪽.
- 강현조, 「〈단발령〉과 〈금상첨화〉의 전래 서사 수용 및 변천 양상 연구」,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101~133쪽.
- 권기성, 『『양은천미(揚隱闡微)』 소개 유회(類話)의 원천탐색과 편찬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5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169~204쪽.
- 권혁래, 「신작 구소설 <서진사전>에 그려진 피난자의 형상과 현실인식」, 『은지학호』 14, 원지 논총, 2006, 287~311쪽.
- 김동욱, 「《靑野談藪》의 源泉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제기」, 『도남학보』 20, 도남학회, 2004, 163~183쪽.
- 김재웅, 「〈강능추월전〉의 이본 형성과 변모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169쪽.
- 남석순, 「신소설의 대중화와 통속적 요인 연구」, 『한국문예창작』 2.2, 2003, 87~117쪽.
- 박상란, 「신작 구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5~36쪽.
- 박순임·성현경, 「『사씨남정기』와 『소씨전』의 대비」,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

- 학회, 1986, 154~171쪽.
- 박혜경, 「신소설의 통속화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한국현대문학연구』 19, 한국현대문학회, 2006, 191~222쪽.
- 박혜경, 「신소설에 나타난 통속성의 전개 양상」,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275~302쪽.
- 손병국, 「『鴛鴦圖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253~278쪽.
- 송민호,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 전대(前代) 소설 전통의 계승과 신소설 창작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96쪽.
- 심재숙, 「<소운전>-<월봉기>계 작품군의 유형변이와 담당층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70쪽.
- 육재용, 「『月峯記』의 異本 研究 : 主導 모티프의 패턴化 樣相을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198쪽.
- 육재용, 「월봉기류의 자국화 양상 연구」,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2003, 245~276쪽.
- 육재용, 「강릉추월전의 창작성 고찰」,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2006, 253~273쪽.
- 이경림, 「근대 초기 『금고기관』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7, 한국근대문학회, 2013, 225~259쪽.
- 이승은, 「19세기 폐설의 변화와 『消閒細說』」,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1, 순천향대학교, 2014, 5~29쪽.
- 이필우, 「<蘇知縣羅三再合>계 변안소설의 실상과 상호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103쪽.
- 이 화, 「『蘇知縣羅衫再合』과 『蘇知縣羅衫再合』계 '鬮案類' 소설의 比較研究」,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60쪽.
- 장현근, 「『消閒細說』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03쪽.
- 전상욱, 「<월봉기군> 소설의 작품세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95쪽.
- 정명기, 「야담의 변이양상과 의미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1~195쪽.
- 정명기, 「<趙生-屠牛卍의 딸> 이야기의 의미 연구」, 『열상고전연구』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87~123쪽.
- 정명기, 「『청야담수』의 원천과 변이양상 연구」,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2, 보고

사, 2001, 285~315쪽.

정명기, 『韓國 野談類文學과 中國側 文獻資料의 關聯 樣相 - 『揚隱闡微』와 『今古奇觀』의 關係를 中心으로 -』, 『어문학교육』 31집, 한국어문교육학회, 2005, 445~476쪽.

정보라미, 『『마상루』계 피난서사 자료의 상호 관계 재고』, 『우리문학연구』 45, 우리문학회, 2015, 159~195쪽.

정상진, 『〈玉簾系小說〉 研究』, 『韓國文學論叢』 19, 한국문학회, 1996, 209~238쪽.

주형예, 『여성이야기를 통해 본 20세기 초 소설 시장의 변모 : 이해조 <원앙도>·<모란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271~299쪽.

ABSTRACT

The Aspects and Meanings of Vulgar Descriptions Found in
『Yangeuncheonmi』

—Focusing on the cases of <Kimyeongrangyongjigagwimun> and
<Bonghwangdaehoeumgangchunwol>—

Kwon, Ki-sung

This study examines the aspects and meanings of vulgar descriptions found in 『Yangeuncheonmi』. The early 20-century collections of historical tales mostly tended to follow the practice of old tales of the previous time, but 『Yangeuncheonmi』 did not accept the descriptions of ‘Dansunjeonjae’ though it is a collection of historical tales produc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ories of <Kimyeongrangyongjigagwimun> and <Bonghwangdaehoeumgangchunwol> contained in 『Yangeuncheonmi』 and trace how it is different from the collections of historical tales of the previous time while seeking how it is associated with other literary works of the time.

<Kimyeongrangyongjigagwimun> has the story of <Josaeng-Dowootan’s Daughter> found in 『Swaeo』, 『Seoneonpyeon』, or 『Seongsuchonghwa』 as its main gist but richens the narrative even further by using the motif found in the story of <Imanwon> contained in 『Gimunchonghwa』. 『Yangeuncheonmi』’s compiler stressed women’s wisdom through <Kimyeongrangyongjigagwimun>, suggested the atmosphere of the time pursuing free love indirectly. But this tendency is similarly found in 『Wonango』 which Lee Haejo wrote in 『Jeguksinmun』 serially, too.

<Bonghwangdaehoeumgangchunwol> is similar to <Sojihyeonnasam-jaehap> contained in 『Gyeongsetongeon』, one of the novels from Ming, and it is also similar to the translated works of it like <Wolbonggi> or <Gangreungchuwoljeon>. In <Bonghwangdaehoeumgangchunwol>, however, the main characters’ heroic aspects existing in previous works were

gotten rid of, and the stories of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reduced much while the parts about family separation increased greatly. And it embodied the stories of family harborage which was common in the background of the time full of heated competition between powers through <Bonhwangdaehoegeumgangchunwol>.

These two works may not be evaluated to have placed the modern world to the foreground. Yet, 『Yangeuncheonmi』's compiler paid attention to the trends of literature and changes of the time while compiling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tales grounded on the modes of vulgar literature familiar to the public. To wit, 『Yangeuncheonmi』 supported the way that was different from the way that other collections of historical tales based on old tales adopted, so its unique status is recognized as a collection of historical tales transcribed in the early 20th century.

Key Words *Yang-eun Cheon-mi, Method of Common Description, Won-Ang-Do, Sojihyeonnasamjaehab, Transmission and Modification*

논문투고일 : 2017.10.15
심사완료일 : 2017.11.09
게재확정일 : 2017.11.15